

본 자료는 납청유기 이형근공방 소개자료로
방짜유기, 평안북도 납청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명예보유자 이봉주 옹, 보유자 이형근에 대한 내용과
납청 방짜유기 제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창유기 
이형근공방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KBS 1TV 캠페인 '한국의 유산' 2012년 11월

수천번의 두들김 뒤 비로소 완성되는
인고(忍苦)의 그릇,
조상의 지혜로 빚어낸 생명의 그릇

방짜유기

1

놋쇠와 통쇠

- 유기는 제작기법에 따라 방짜와 주물, 반방짜로 나뉜다
- 방짜는 동(銅)과 석(錫)을 정확한 비율로 합금하여 두드려 만드는 놋제품. 금속조직을 늘여서 만드는 것이라 떨어뜨려도 찌그러질 뿐 깨지지 않는다
- 주물유기는 방짜 합금과 달리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이나 기타 잡금속을 섞어 녹인 금속을 주형에 부어 대량으로 생산.
- 잡금속을 섞어서 주물로 대량생산하던 합금쇠를 통쇠라고 하며, 전통적인 놋쇠와는 엄격히 구분 지어 사용.
- 상질의 놋그릇으로 유명한 납청에서는 방짜유기점은 놋점, 주물유기점은 통점이라 부르고, 놋쇠 그릇은 놋성기, 통쇠로 만든 그릇은 통성기라 구분

대한민국 유기지역

납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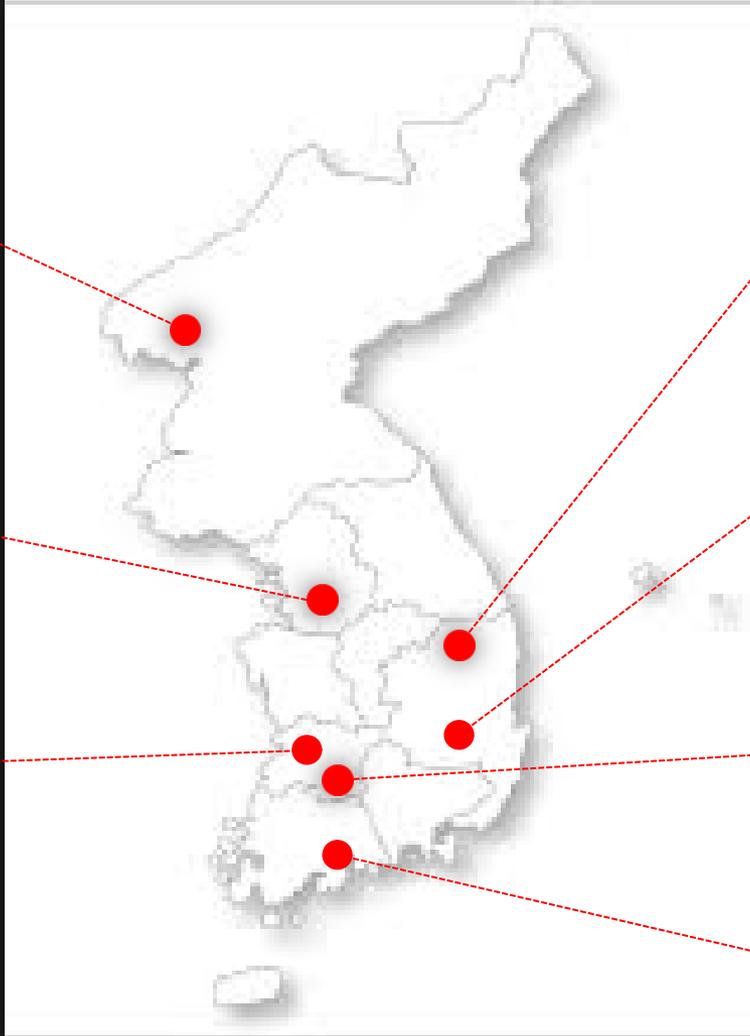
조선시대부터유기제작으로 유명했던곳.
평안북도 정주군 마산면 청정동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납천으로 불렀으며,
마을사람 대부분이 유기 제조업에 종사.
일제시대 초기까지 생활유기, 약기류 등
방짜유기 제조로 크게 발전.

안성

안성은 영남과 호남 문물이 모여드는
경제 요충지로 조선 중엽부터 주물방식으로
유기를 제작하고 판매. 안성유기가 유명한
이유는 서울 명문 사대부 집안에서
그릇을 맞춤으로 주문받아 제작하여 유명세.
주로 식기와 제기류를 제작.

익산

익산은 옛날부터 호남평야의 농산물
집산지이자 상업도시로 발달하면서
평야지방에 식기를 공급하는
유기산업도 함께 발달.



봉화

봉화는 5백년 전부터 관가에서 유기를
제작하였으며, 1840년부터는
삼계리 일대에 유기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동네가 형성되어 경기도 안성과
더불어 주물유기 생산지로 명성.

대구

대구에서도 유기를 많이 만들었지만
유래는 알 수 없다. 기록에 보면
1800년 이전부터 대구에서 유기를 생산
한 것으로 추정. 1926년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대구 경북지방의 23개 유기 생산
시군 가운데 대구가 가장 많은 생산한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

운봉

운봉은 옛날부터 유기가 성행하였는데
특히 농악기는 소리가 좋기로 유명.
주물유기와 방짜유기를 함께 만들어 왔으나
해방 이후에는 주물유기만 생산.
현재 동면상우리 유기촌에서 유기생산.

순천

순천에는 주로 작은 식기나 오목주발,
요강단지 등을 만드는 독특한 반방짜
유기제조기법이 전하고 있다.

출처 :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방짜유기의 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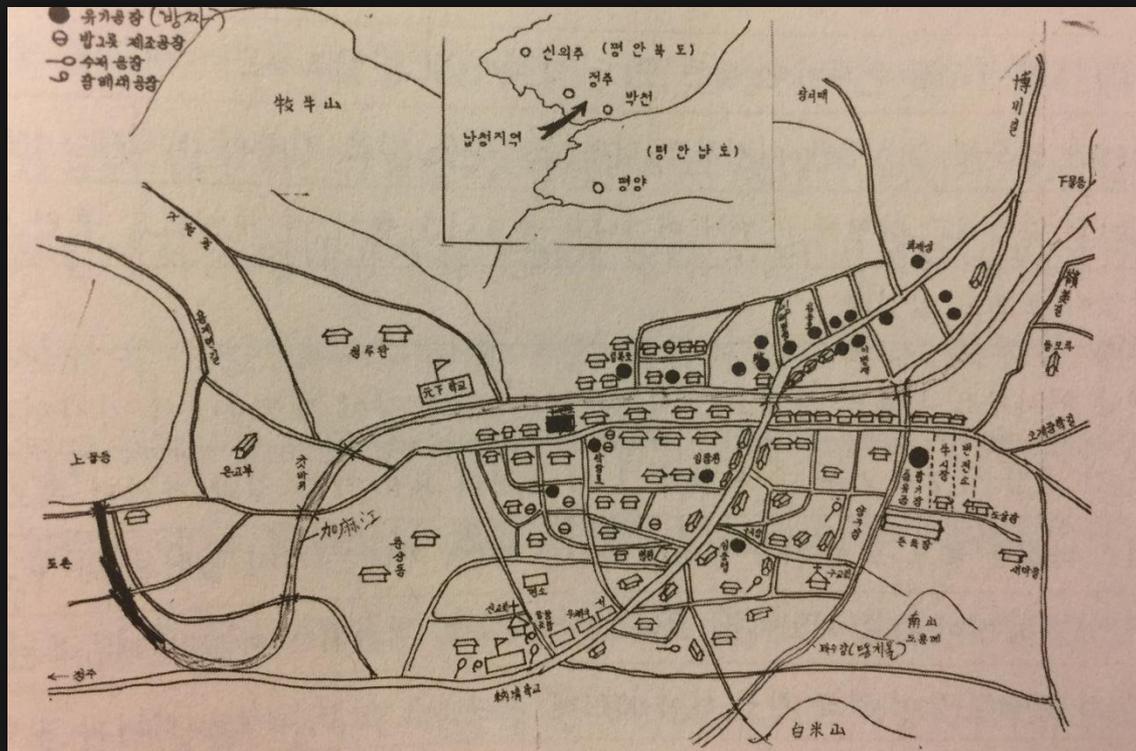
남창

2

‘납청’

조선시대부터 유기 제작으로 유명한 평안북도 정주군 마산면 청정동.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이봉주 명예보유자의 고향이다. 사람들은 이곳을
납청(納淸)이라 불렀고, 자연스레 여기서 생산되는 유기를 납청유기라 하였다.

360호가량의 가옥이 모여 살던 이곳 사람들은 유기 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유기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갔다. 납청 외에도 평양·사리원·삭주 등에도 방짜유기
공장이 있었으나 제작 기술자들 대부분이 납청 지역 출신이었다고 전해질 만큼
납청의 유기제작 기술과 품질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남청은 평안북도 정주읍과 박천읍 사이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내공업으로 유기업을 하여 생활했던 곳. 일찍이 유기제작이 크게 발전하여 각 지방에서 유기도매상들이 모여들었고, 일제 초기까지 성시를 이루었던 곳.

남청에서 유기가 성행한 원인은 교통의 요지로서, 남청의 유기는 평안도에서는 물론 황해도, 함경도까지 판로가 있어 수요가 많았다. 또한 유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력 좋은 소나무 숲이 가장 많이 생산된 것도 유리한 조건이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명예보유자

이봉주



이봉주 옹은

1926년 2월8일 방짜유기의 명산지였던 남창 인근 마을(평안북도 덕언면 침향동 발산부락)에서 태어났고 1948년 12월 죽음을 각오하고 월남한 후 서울 양대공장에 입사한 후로 일생 동안 방짜유기를 제작했다. 방짜유기를 생산할 수 없었던 어려운 시절에 큰 시련을 겪었고 방짜유기 제작 중 불뚱이 튀어 오른쪽 눈을 잃기도 했다.

1983년 6월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보유자가 되었고 (사)전통공예 기능보존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남창양대'를 저술했다.

평생에 걸쳐 한점 한점 모으고 제작한 유기작품과 유기공구들을 대구방짜유기박물관에 기증해서 전시하게 함으로써 유기문화를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게 했다.

2004년 남창양대공장을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로 이전했고 현재는 유기전수관과 전통공방을 개설해서 방짜유기 제조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이봉주 선생님은 대한민국 유기장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 최대의 징 제작에 성공하였고,
10Kg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온
좌종의 한계도 끈질긴 장인정신으로 극복하셨다.

홍정해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보유자)



2004년 남청의 방짜유기 제작기술 전수를 위한
문경 남청유기촌 설립



기증자
이봉주
Donator Lee Bong-ju

대구방짜유기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이봉주 선생
으로부터 방짜유기작품
과 수집품을 기증받아
대구광역시에서 건립한
박물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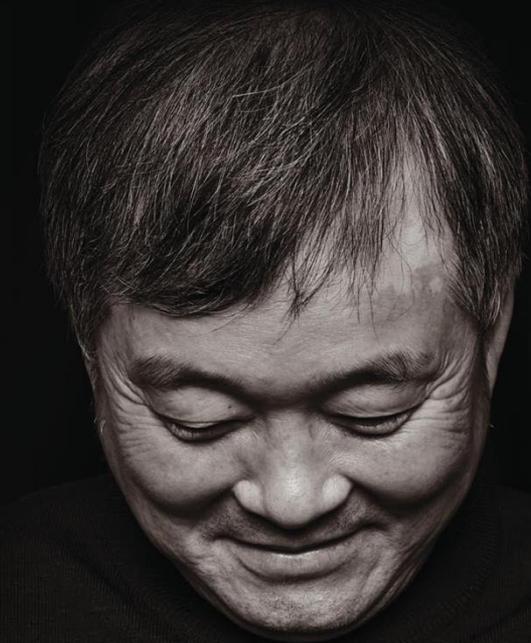
대구방짜유기박물관

2007년 5월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이봉주옹이 제작/수집한
유기 275종 1,489점을 대구직할시에 무상 기증하여 개관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보유자

이형근

4



“유기장 DNA 대물림, 가문의 자부심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이형근

1958년 서울 출생

1983년 동국대학교 졸업

1983년 남창유기 입사

1987년 제1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

1989년 제19회 전국공예품 경진대회대상
지금의 대통령상인 대상을 유기작품으로 최초 수상

199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전수교육조교

1994년 제19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

2007년 제32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특선

2014년 제39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문화체육부 장관상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방짜유기장 보유자지정

2016년 방짜유기기법 공개시연행사(문화재청 외 후원) 개최

납치의 방짜유기기술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지금까지 방짜유기 제작기술은 꾸준히 현대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이신 이봉주 명예보유자께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통 방짜유기 제작기법을 보존하시기 위해 여러 차례 공개 시연회를 통해 전통기법의 명맥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짜기술이 현대화되더라도 전통기술이 무엇이었는지 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만의 뛰어난 합금 기술의 방짜유기 기법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기술 보존국 임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방짜는 거짓말을 못한다

방짜유기는 반드시 구리와 주석만을 합금(구리 78%와 주석 28%)한
상질의 놋쇠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0.1%라도 들어가면 올바른 작업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재와 장인의 손기술이 만들어진 제품을
예로부터 '방짜'라 칭하여 온 것은 가장 좋은 쇠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남창방짜유기 제작

5

남창방짜유기 제작 구성원



원대장

앞망치 대장

네편대장

가질대장

갯대장

결망치

센망치

밖풍구

안풍구

제질풍구

남창방짜유기 제작 구성원

- 원대장 : 전체 방짜일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로 최고 기능의 보유자이다
- 앞망치대장 : 원대장의 맞은편에 앉아 화덕에서 가열한 바둑을 재빠르게 모루 위에 올려 놓는 역할을 담당한다
- 네핌대장 : 네핌질 할 때 달구어진 바둑을 모루 위에 올려놓아 겻망치와 센망치가 매질 할 수 있도록 하며, 겻가질이나 닥침질도 한다
- 가질대장 : 수동식 선반작업대인 가질대에 앉아 기물을 마무리하는 것이 주된 일이고, 닥침질도 한다
- 겻대장 : 좋은 구리와 주석을 선별하여 정확히 합금해서 용해하는 역할
- 곁망치 : 앞망치의 왼쪽에 앉아 센망치와 달구어진 바둑을 교대로 쳐서 늘이는 작업
- 센망치 : 가열된 바둑을 세계 내리쳐 늘이는 작업
- 밖풍구 : 겻대장의 조수로 용해작업을 할 때 풀무질을 하거나 도가니를 소탕에 넣고 용탕을 돌려내는 등 용해를 돕는다
- 안풍구 : 원대장의 조수로 화덕에 불을 피우고, 화력을 유지시키는 풀무꾼이다
- 제질풍구 : 제질간의 풀무꾼으로, 원대장이 제질할 때 조수일을 한다

방짜유기 제작 과정



용해
바독알 만들기
네뽀질
우김질
냄질
닥침질
제질
담금질
벼림질
가질

방짜유기 제작 과정

1. 용해



방짜유기는 구리 78%, 주석 22%의 황금비율로만 제작이 가능하다. 여기에 불순물이 0.1%라도 들어가면 제품 단조 과정에서 넓혀지지 않고 중간에 깨지거나 매우 두텁게 합금한 상태에서 크게 변형을 못한다

2. 바둑알 만들기



곱돌이나 무쇠로 된 원형틀에 용해된 쇳물을 도가니로 붓는다. 쇳물에서 일어나는 기포를 없애기 위해 톱밥을 뿌린다. 쇳물이 굳으면 들어내 사용하는데 그 생긴 모양이 바둑알 같다고 하여 바둑이라 부른다.

3. 네핌질



평안도 사투리로 넓히다가 네피다. 즉, 바둑 모양을 망치로 두들겨 넓히는 작업이다. 마치 수제비 반죽한 밀가루를 방망이나 사기그릇으로 굴리며 넓히듯 얇고 넓게 만드는 과정이다.

방짜유기 제작 과정

4. 우김질



우겨 넣다는 평안도 사투리로 네땀된 늦쇠를 여러 개 겹쳐 평으로 춤을 높여 올리는 작업이다. 작게는 3개 많게는 10개 까지 한다. 이유는 생산성을 높이고 얇은 걸 망치로 반복해서 치기 어려운 점 때문이다.

5. 냄 질



우김질로 여러 개로 겹쳐진 기물을 하나씩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6. 닥침질



우리개를 불에 달구면서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납작한 원판이 우김질을 통해 대략적 모양을 갖춘 후 길고 얇은 닥침 망치를 이용해 형태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방짜유기 제작 과정

7. 제 질



다침된 상태에서 불에 달구면서 더 확실한 성형을 하는 과정이다.

8. 담금질



물에 담그어 열처리 하는 과정으로, 기물의 경도를 낮추는 과정이다.

9. 버림질



갑자기 찬물에 담그면 원래의 모습에서 약간 변형이 되는데 이를 잡아주는 망치질이다.

방짜유기 제작 과정

10. 가 질



최종단계로 완성된 기물의 산화피막을 제거하고 연마 과정을 통해 표면의 망치자국도 없애 닳쇠의 본색이 들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남창유기 
이형근공방

6



평안도 남청 ‘방짜유기’ 3代가 지켜요

전통제조기법을 이어가는 이봉주 장인-형근-지호

문화일보/2016년9월26일

감사합니다